



제주 실종사건 괴담 확산... 법적 대응은 한계

도, 언론·SNS 상시 모니터링... 허위정보 댓글 삭제도 지역 혐오 ‘불법정보’ 규정 정보통신망법 지난 7월 개정 “허위정보·혐오 조장 의도성 입증 모호해 처벌 어려워”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 이후 제주 관련 괴담이 퍼지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일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공유되는 제주 관련 괴담 등 허위정보 게시물과 언론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제주 실종사건을 두고 중국인 범

죄조직 개입설, 인신매매설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해서 공유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굴보디아(갑골+갑보디아), 제주 포비아 등 혐오와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난달부터 제주 실종사건 관련 언론보도와 각종 SNS 게시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공식 SNS 계정

달린 댓글 중 허위정보를 포함한 경우에는 자체 삭제 또는 신고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 정보’로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주 괴담과 관련해 법적 대응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허위정보를 담은 언론보도의 경우 정정보도를 요

청할 수 있지만 개인 SNS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할뿐더러 괴담과 허위정보의 기준이 주관적이라 경계가 모호하다”고 했다.

김경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두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의도를 가지고 혐오를 조장했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 조항에 혐오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담을 수도 없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도 법적 대응보다 정정보도 요청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언론 입장에서 스스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유리기자

“택시 탔는데 갈대밭에”... 가짜뉴스 일파만파

허위 사실 영상 공유·확산

“내용 부합하는 신고 없어”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 이후 제주 치안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유튜브 영상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유되고 있으나 허위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언론들은 모 유튜브가 게시한 영상 ‘새벽 택시 탔다가 눈 떠보니 갈대밭’을 인용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영상에서 유튜브는 “지인의 친구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며 “택시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통화하는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112신고내역과 키스(형사사법정보 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내용과 일치하는 신

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영상에서는 과거 제주에서 벌어졌던 폭행 및 절도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6년 8월에 발생했던 ‘제주시청 공중 화장실 목조름 사건’과 2024년 5월 벌어진 ‘제주 금은방 절도 사건’ 등이다.

경찰은 영상에 언급된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일자 등이 생략돼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오인돼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주변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온라인 등에서 확산되는 범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해 오인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우도 천진항서 50대 남성 심정지 구조

우도 천진항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9시20분쯤 우도 천진항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해경에 의해 이날 밤 9시30분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구조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양유리기자

“민간 공동체와 함께 치안안전망 확대”

제주자치경찰, 추석 연휴까지 특별안전대책 연계 총력 추진

제주자치경찰이 추석 연휴까지 특별안전대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 곳곳에서 각각 안전활동을 벌이는 민간 공동체와 함께 치안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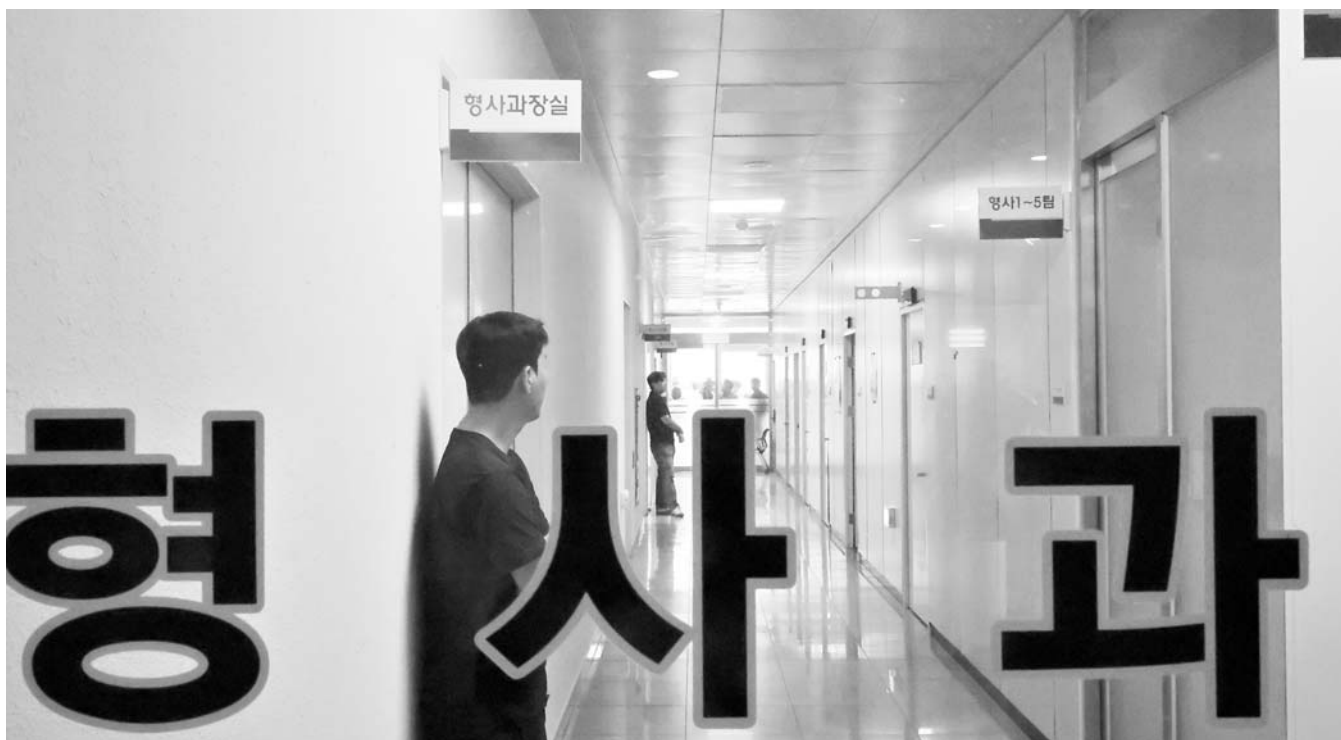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실시하는 특별 안전대책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을 모은 ‘제주안전 총력대응’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마을과 학교, 관광지, 올레길, 해안 등 도내 곳곳에서 자체적

으로 펼쳐온 민간단체의 안전활동을 자치경찰이 하나의 공동체 치안안전망으로 연결해 안전 사각지대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참여 인력은 주민자치경찰대 372명, 시니어클럽 742명, 사단법인 느영나영 361명, 민간경비 59명, 민간드론 9명 등 모두 1543명이다. 주민자치경찰대와 시니어클럽 등은 마을·학교·골목상권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관련 민간단체는 관광지·올레길·연안지역을 살핀다.

민간경비는 기존 출동망을 활용해 시내권 야간 취락지역을 점검하고, 민간드론은 올레길과 해안가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공중에서 확인한다. 박소정기자



8일 제주지검이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모습. 검찰은 이날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실종 허위종결’ 보완수사 검찰, 제주경찰 압수수색

8일 제주경찰청·서부서 대상 “실종시스템 점검·확인 위해”

검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와 관련해 제주경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

전 9시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3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점검·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제시공이미지]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쿨고리 작업세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